

백원국 차관, 해빙기 안전점검으로 신안산선 현장 방문 “신속한 공사 추진으로 수도권 서남부 지역 30분 출퇴근 시대 개막”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월 29일 오후 2시부터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현장 점검에 나섰다. 특히, 중점인 여의도 정거장, 분기역인 광명 정거장, 시점부 인근인 호수 정거장을 찾아 해빙기 사고 예방 준비 상황과 공사 현황을 점검하며, 신속한 공사 추진을 지시하였다.
- 신안산선은 경기도 안산/화성에서 여의도까지 44.7km의 노선과 정거장 19개소를 신설하는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으로 '20.4월 착공하였다.
- 백 차관은 통합감리단장으로부터 공사 현황을 보고받으면서 “신안산선은 철도서비스 소외 지역인 안산·시흥·화성 지역을 역세권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으로 수도권의 도시구조를 변화시키는 사업”이라며,
 - “신안산선이 개통하면 안산의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서 여의도까지 이동시간이 100분에서 27분으로 대폭 줄어들어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최초로 대심도를 적용하고, 최초의 건물형 출입구를 설치하는 등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출퇴근 교통난으로 힘들어하는 수도권 서남부 주민을 위해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백 차관은 해빙기 사고 예방 준비 상황을 확인하면서 “최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본 사업은 총 44.7km 중 39.8km가 대심도 지하에 위치한 만큼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범위가 상당히 클 것”이라며,
 - “공사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철도공단과 사업시행자인 (주)넥스트레인 등이 안전에 대해 꼼꼼하게 교차 점검하고, 개통 이후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타 철도사업 운영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2024. 2. 29.

국토교통부 대변인